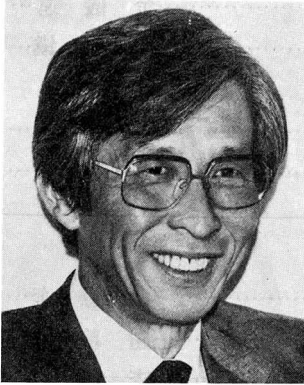


# 先人들의 自然觀

金 儀 遠



現在 우리나라는 17개에 달하는 國立公園과 21개의 道立公園 및 21개의 郡立公園을 가지고 있다. 이들 面積을 합하면 4,249.109km<sup>2</sup>로서 실로 國土面積의 4.29%에 해당하는 尠大한 면적에 달한다.

이들 大部分의 國·道立·公園들은 北漢山 國立公園을 除外하고는 深山·島嶼 등으로 大都市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市民들이 자주 探訪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멀지 않는 將來에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20~30일 이상의 年暇를 갖게 된다면 都市民의 大部分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原始景觀地域인 國·道立公園에 殺到할 것이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自然公園은 한편에서는 自然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都市民을 위한 利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年間 우리나라의 自然環境은 破壞와 汚染으로 點綴되어 온 것이 事實이다. 開發과 保全의 均衡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銘心해야 할 일은 生物集團의 發生, 持續, 衰退, 交替에는 一定한 時間的 空間的 秩序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한번 파괴된 生態系의 回復에는 長久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긴 歷史를 지탱해온 先祖들의 自然觀을 돌이켜 보면 그들이 意識했던 안했던 간에 우리 先祖들의 生活은 自然과의 共存으로 이어져 왔다 할 수 있다. 最近에 비롯된 급속한 自然의 劃一化 現代 産業의 發達 以前까지는 적어도 우리 民族의 生活은 自然과의 調和속에 이루어졌다. 그 主된 理由는 우리 民族은 유럽人처럼 肉食을 하는 遊牧民族이 아니고 쌀을 主食으로 하는 農耕民族이었다는點과 精神의으로는 佛教思想에 影響받은 自然과의 共存心理가 支柱가 되었다는데 있다. 한 民族에 있어 國土(自然)를 존경하는 감정은 심히 소중한 것이고 또한 존경하는 태도는 信仰的으로 까지 發展해야 된다는 것이다. 六堂 崔南善은 「옛날 우리의 祖上들은 信仰的으로 높이는 聖山으로 들어 갈때는 반드시 大小便을 받아 가지고 나올 그릇을 가지고 가서 行여나 神聖한 몸뚱이를 더럽힐까 조심하고 또 山中에서도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큰소리로 지껄이지도 않고 마구 몸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行여나 神靈을 성나게 할까 봐서 극진한 조심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네 말에는 소중한 山이라 감히 오른다 하지 않고 반드시 山에 든다고 하였다. 요사이 칠부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돌리고 코웃음 칠런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傳統이 어느 사인가 없어지고 요사이는 방자한 思想에 몰들어 걸핏하면 自然을 征服한다는 등 山岳을 征服하였다든 등 하여...天地造化를 征服하느니라 하는 턱없는 慢心을 가지는 버릇이 갈수록 늘어감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自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다만 信順과 融合이 있을 뿐이요...무궁무진한 天地造化中에서 電氣를 좀 끌어다 쓴다는 것이 무슨 自然의 征服이겠느냐 숨이턱에 닿아서 어느 峰우리 위에 발을 좀 붙인것이 무엇이 山岳을 征服한 것이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開發도 좋고 機能化도 좋지만 이것을 享有하고 있는 現代人도 生命을 가지고 있는 限 自然의 罔연한 生物集團의 秩序內에서 發展하는데 不過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筆者：韓國國立公園協會 理事·曠園大 教授)